

육계계열화 업체
오리업 진출 반대
진정서 제출

본회는 지난 9일 육계계열화 업체의 오리업 진출과 관련된 반대 진정서를 농림부에 제출했다.

진정서에서 본회는 국내 오리업은 중국산 가금육 수입중단조치가 재개되고 비위생적인 중국산 오리고기의 불법유통이 방송에 수차에 걸쳐 보도되면서 소비위축에 따라 2중3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같은 가운데 막대한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육계계열화 업체들이 오리업에 진출하는 것은 지금까지 자력에 의해 어렵게 이룩한 오리업 종사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또 육계계열화 업체들의 오리업 진출 움직임은 당초 계열화사업자금이 그 업계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원된 만큼 그 업종의 경쟁력 제고 및 수출 등 외국의 육계계열화 업체와의 경쟁력 제고에 힘쓰는 것이 마땅하며 규모가 영세한 오리업 진출은 부당하다며 진정이유를

밝혔다.

따라서 육계계열화 업체들은 오리사업에 뛰어들어 오리업 종사자들의 생업을 망치기 보다 연간 수만톤의 수입닭고기에 대응한 경쟁력을 높이고 수백만톤의 닭고기 수입시장이 지적에 있는 잇점을 살려 수출시장 개척 등에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양계산업 발전을 위해 큰 업체가 해야할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리업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동안 오리사육 및 유통 등 계열화사업을 추진해온 업체들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도육성하는 정책을 입안하여 오리업의 전문화 규모화를 꾀하고 육계 계열화 업체 역시 해당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도감독해 달라고 진정했다.

한편 이같은 진정은 본회 광주전남도지회의 진정서가 중앙회에 접수됨에 따라 지난 7일 긴급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 참석 이사들의 반

대정부 투쟁집회
개최기로 결의

대진정서제출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제출됐다.

중국산 가금육 수입재개와 관련하여 본회는 긴급이사회를 열어 잘못된 정부정책을 규탄하는 대정부 투쟁을 벌이기로 결의했다.

또 최근의 불황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새끼오리 가격의 대폭인하하는 한편 추석전후에 출하되는 육용오리 출하량 조절을 위해 해당 종란을 입란중지하여 폐기기로 결의했다.

이날 이사회는 중국산 가금육 일부 수입재개 조치와 관련하여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규탄하기위한 집회를 개최기로 하고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오리업계의 피해에 대해서는 법적대응을 통해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기로 했다.

이를위해 비상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세부적인 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협회 임원진등 소위원회 업계 대표로 농림부를 방문하여 항의키로 하고 각 지회별로 지역국회 및 청와대, 외교통상부 등에 진정서를 제출키로 했다.

한편 현재의 불황극복을 위해서는 새끼오리 가격을 호남지역에서 5백원으로 인하한데 대하여 이같은 가격으로는 종오리 도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인식하고 새끼오리 가격을 3백으로 인하하여 구조조정을 촉진키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새끼오리 구조하에서는 부화장들의 연쇄도산이 우려되며 이는 오리업외해를 초래할 수 있어 회원부화장들에 대해서는 사육업계가 새끼오리가격의 2백원을 보조하여 추후 수급안정과 적정 생산이 가능토록 수급을 조절해 가기로 했다.

비상대책 소위원회
세부대책 협의

본회는 중국산 가금육 수입재개와 관련된 대정부 규탄등 세부방안 모색을 위한 16인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11일 세부방안을 협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 소위원들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발생된 오리업계의 피해에 대해 강력규탄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생산자단체 소비자 단체등과 연계한 대정부 규탄집회를 오는 23일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오후 3시에 개최하기로 했다.

세부적인 방안으로는 광주전남도 지회의 경우 차량 3대를 이용하여 참석자들을 수송기로 하고 각 지회별로 차량 1대씩을 이용하여 참석자들을 수송기로 했다.

또 큰오리를 차량으로 운송해 과천 청사에 풀어놓는 방안이 제시됐으나 합법적인 시위가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해당 유통업체는 새끼오리 2만수를 거출하고 부화장들은 종란 5만개를 거출해 시민들에게 나눠주는 형식으로 오리업계의 어려움을 호소기로 했다.

또 농림부 항의방문단을 구성하여 13일 농림부 장관을 접견하여 업계의 어려움을 호소기로 하고 중국산 가금육 수입재개를 철회를 요청기로 했다.

이밖에 집회를 위한 생산자단체의 참여독려 및 시민단체의 협조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사무국에 일임하여 준비기로 했다.

중국산 가금육 반송
및 회수조치 사항에
대한 협조요청

본회는 중국산 가금육 수입재개 조치이후 그동안 회수 및 반송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국립수의과학검

역원에 협조를 요청했다.

협조공문에서 본회는 생산자단체로서 해당사항을 정확히 알아야 회

원들에게 답변 및 업무에 참고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6월4일 중국산 가금육 수입중단조치이후 회수되어야 할 오리고기 수입물량 및 7월 5일까지 회수된 오리고기 수입물량 ▲ 검역통관 보류중이던 오리고기 수입물량중 지난 7월5일 수입재개후 통관된 수입물량 및 반송조

치할 물량 ▲ 7월5일 수입재개 조치이후 13일 현재까지 반송 또는 폐기된 오리고기 수입물량과 수입통관된 물량 ▲ 7월5일 수입재개후 중국산 오리고기에 대한 검역절차는 어떻게 이뤄지는지 등에 대하여 협조달라고 요청했다.

종오리 생산성과 관련된 민원회신

본회는 지난 11일 전남광주 천일부 화장에서 요청한 종오리 생산성과 관련된 민원에 대하여 회신했다.

회신내용 주요내용은 산란종오리 이전이 가능한지에 대해 통상적으로 종오리 사육농장의 경영여건상 산란중인 종오리의 이전은 불가능하며 이전된 종오리의 산란은 3개월

후 가능하나 부화장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된다고 회신했다.

또 이전시 종오리의 손실은 수당 평균 년간으로 5만6천에 해당되며 종오리 가격은 종오리 연간 총소득에 생산비를 제외한 금액의 약 50%에 해당하는 4만1천원에 달한다고 회신했다.

중국산 가금육 수입중단 조치이후 오리업계의 입장 건의문 제출

중국산 가금육 수입중단 조치이후 오리업계는 비위생적인 중국산 오리고기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피해 최소화를 위한 업계의 입장을 표명한 대정부 건의문을 제출했다.

우리의 입장과 관련해서 본회는 6월4일 중국산 가금육 수입중단조치 발표이후 국내산 오리고기 소비가 급격히 줄어들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고 전제하고 또 지난 25일 중국산 가금육의 불법유통이 방송에 보도되면서 국내 오리업계는 중국산 비위생적인 오리고기에 의해 2중3중의 피해를 입고 있어 진퇴양란에 빠져있다고 업계의 입장을 호소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중국정부는 우리정부의 이번 조치가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 병원균 검출에 의한 국제수역사무국의 관련규정에 합당한 조치임에도 적반하장격으로 수입중지 해제를 요구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반박했다.

또 식육의 위생문제는 무역분쟁의 논의자체가 될 수 없는 사안임에도 자국의 이익만을 앞세운 중국측의 움직임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처사이며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만일 중국정부가 비위생적인 자국의 가금육 회수 및 반송조치를 하지않고 자국의 이익만을 앞세워 정치 외교적 쟁점화 움직임을 계속 하면 1만5천호 오리사육농가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고 생존권 수호를 위해 단결투쟁할 것을 천명했다.

이를위한 대정부 건의에서 본회는 ▲위생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중국산 가금육 불법유통업자들은 국내 오리업계 종사자들의 피해와 자신들의 일터마저 잃어버린다는 점을 인식하여 자진신고를 촉구 ▲ 비위생적인 중국산 오리고기가 회수되지 못하는 것은 정부측의 미온적인 행정력 동원에 있는 만큼 정부는 법적제제 조치를 총동원하여 신속한 회수조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 ▲ 가격안정을 위한 수매비축자금의 지원 및 사육량 감축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 등 업계

피해 최소화 대책 강구 ▲ 정부는 적인 발전을 위한 중장기 발전 계획의 수립시행을 주요내용으로한
 중국측의 어떠한 정치외교적 협상 회의의 수렴시행을 주요내용으로한
 에 강력대응해 줄 것을 촉구 ▲ 오 건의문을 제출했다.
 리업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안정

모란유통 가공장 준공식



경기성남에서 오리고기 유통을 하고 있는 모란유통(대표 김만섭)은 지난 15일 오리고기 위생가공 유통을 위한 가공장을 신축하고 관련업계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가졌다.

은 대지 1천8백50평에 총가공장 시설 1백46평으로 건립됐다. 가공장 시설에는 급냉시설 및 냉동시설 20평과 제빙시설, 등 90평과 폐수처리시설은 별도로 신축됐다.

충북 음성군 대소면 오류리 534-39번지에 소재한 모란유통 가공장은 모란유통은 현대적인 시설을 갖춘 가공장에서 신선 냉장 오리고기 가공품을 가공하여 신속한 유통을

통해 이 지역 오리고기 유통을 선도해 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모란유통은 자사 제품상호를 오리박사, 토종박사로 명명하고 신선 통오리, 오리로스, 연훈제, 청등오리, 유향오리 및 토종닭을 계열화 사업을 통해 원료육을 조달하여 가공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일일 7백수 내외의 오리고기를 가공 유통해오고 있는 모란유통은 향후 1천수이상의 오리가공 유통을 목표로 잡고 있다.

총 공사비 6억2천만원내외가 소요됐다고 밝힌 김사장은 향후 오리고기 시장 전망을 신선도에 따라 승패가 좌우될 것이라고 단언하며 본 가공장은 신선한 오리고기 가공

을 목표로 설계 준공됐다고 밝혔다.

주요 가공품은 자사 브랜드 대리점을 통한 체인점화로 유통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힌 김사장은 준공된 가공장내에서 오리연훈제 및 오향오리, 오리보쌈등 다양한 가공품을 생산하여 최종 소비자인 요식업소에서 즐겨찾을 수 있는 가공품을 집중 개발하여 유통한다는 계획이다.

한때 다른업종으로 전환하기도 했으나 오리고기 유통업에 종사한지 10년만에 합법적인 가공장을 준공하고 제대로된 오리고기 가공품을 생산 유통한다는 모란유통이 가공장 준공을 축하하며 국내 오리업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맡아 주기를 기대해 본다.

오리업발전협찬금 기탁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코리아더카드 문순금 대표 1000만원
- 베델농산 윤천우 대표 100만원
- 천일부회장 탁경철 대표 40만원